

주요 내용

2000년 경제 전망

□ 99년 세계 경제 평가

- 99년 선진국 경제는 미국 경기의 활황세 지속, 일본의 부진, 유럽의 경기 회복 등으로 정리될 수 있으며, 신흥 시장에서는 아시아의 경기 회복이 두드러진 가운데 중남미 경기가 부진을 면치 못했음

□ 2000년 권역별 경제 전망

- (미국) 2000년 미국 경제는 소비지출, 자본지출, 건설투자 등 모든 부문에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4.7%의 고성장을 이룰 전망
- (일본) 하반기 이후부터 실질적인 투자 증가, 소비의 본격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99년보다는 상승한 1.7%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
- (유로권) 소비 심리 회복과 유로화 약세에 따른 수출 경기 회복 등으로, 2000년중 큰 폭의 성장세를 시현할 전망
- (중화권) 중국은 민간 소비 회복으로 인한 디플레 완화가 기대되며, 홍콩은 실업률 하락, 대만은 수출 급증으로 인한 회복세가 기대됨
- (동남아) 민간소비 증가와 무역수지 흑자로 경기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97년의 성장세(4.8%)보다 높은 5.8%선의 성장을 기록할 전망
- (라틴 아메리카) 경기 회복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97년의 성장수준 회복은 요원한 상태이며 2000년중 3.6%의 성장이 예상됨
- (동유럽) 동유럽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폴란드의 경상적자 규모 누증으로 인한 통화 가치 급락이 우려되고 있음

I. 세계 경제 평가와 전망

○ 99년 세계 경제 평가

- (선진국) 99년 선진국 경제는 미국 경기의 활황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 경기는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일본 경제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했음
 - 미국 경제는 증시 활황에 따른 내수 강세가 지속되면서 4.1%의 고성장을 기록했으며, 증시 활황에 따른 내수 강세가 지속되었음. 실업률이 전후 최저수준인 4.0% 수준까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노동 생산성의 상승으로 인플레이 우려 없는 경제성장이 지속되었음
 - 일본 경제는 99년 중 소폭 성장을 기록했으나, 이는 98년 시행되기 시작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따라 공공투자 및 건설이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실질적인 성장세 회복의 열쇠인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부문에서는 별다른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았음
 - 유로권에서는 구조개혁이 여전히 부진한 상태이나, 제조업 부문에서는 유로화 약세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, 특히 독일과 프랑스의 산업생산 증가율과 제조업 신규주문액이 소폭 상승하면서 회복 기대를 부추기고 있음
- (개도국) 신흥시장에서는 중남미 경제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아시아권 경기의 회복이 두드러졌음
 - 중화권에서는 아시아 경기 회복으로 인해 크게 위축된 민간 소비 및 투자가 회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
 - 동남아 경제는 수출 확대와 내수 회복으로 인해 전반적인 회복세를 유지되고 있으며, 특히 역내 수출이 활성화되고 있음
 - 중남미 경제는 미국의 저금리로 인해 직·간접 투자 유입이 확대되어 왔으나 최근 美금리 인상으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음
 - 러시아 위기와 독일 경기의 부진 등으로 동유럽 국가들의 수출이 부진했으며, 동유럽 지역으로 유입되는 자본이 감소하면서 환율 절하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

○ 2000년 권역별 경제 전망

- (미국 경제) 2000년 미국 경제는 예상외의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4.7%의 고성장을 이룰 전망이다
 - 인플레이를 우려한 연준이 두차례 정도 금리를 추가 인상할 전망이지만, 소비지출의 근본적인 강세 기조를 꺾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되며, 자본지출, 건설투자 등 모든 부문에서 호조세가 이어질 전망이다.
 - 2000년 하반기 이후 저당 금리 상승으로 민간소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부문의 수요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면서 성장률도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고금리의 효과는 2001년에 가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전망이다.
 - 인플레이 기준 지표인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(PCE price index) 증가율은 2% 이내로 유지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저인플레이 속의 경기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

- (일본 경제) 2000년 하반기 이후부터 실질적인 투자 증가, 소비의 본격적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
 - 민간 기계수주액 등 주요 선행지표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며, 건설수주액도 상승 기미를 보이고 있음
 - 이 시작되고 있음. 설비투자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나 4월 초에 발표될 일본은행의 短觀(Tankan) 서베이에서는 일본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경기판단지수(BSI)가 점차 호전될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일본 통산성이 조사한 일본업체들의 생산계획도 전분기대비 2.3% 증가로 잡혀있어 그동안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왔던 생산계획이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음
 - 다만, 구조조정에 따른 고실업 양상이 단시일내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가구당 평균 소비지출도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
 - 따라서 아직까지는 소비부문의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, 하반기 이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며, 전반적으로 2000년 일본 경제는 99년의 성장률보다는 상당폭 상승한 1.7%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

- (유로권 경제)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기가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지만 2000년

중 큰 폭의 회복세를 시현할 전망이다

- 소비자 심리 전환과 투자 증가, 유로화 약세 및 수출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경기 회복에 따라 2000년 성장률은 3.3%를 기록할 전망이다
- 주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내수 회복에 따라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.0%를 기록하는 등 유럽중앙은행의 물가목표가 위협받기도 했으나 OPEC 증산에 따른 유가 하락으로 2000년 물가상승률은 1.7%선으로 안정될 전망이다
- 내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실업률도 꾸준히 개선되어 만성적인 두 자리수에서 2000년에는 9.3%까지 하락할 전망이다

- (중화권 경제) 중국은 민간 소비 회복으로 인한 디플레 완화가 기대됨

- 중국 경제는 최근 소비자신뢰도 상승 반전과 기업의 가격 설정력 회복으로 인해 수년간 이어진 디플레 현상이 완화되고 민간소비도 통화 공급량의 소폭 증대와 개인저축 감소로 인해 2000년 중반부터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
- 구조적 과잉설비 문제와 구조조정 지속에 따른 실업률 증가가 경기회복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부각될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성장세는 99년보다 개선된 8.0%대에 이를 전망이다
- 홍콩 경제는 실업률 하락과 중국관련 교역량이 급증하면서 서서히 디플레 국면을 벗어나 4.5%선의 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다
- 대만 경제는 對아시아 수출이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자본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6.8%의 고성장세를 시현할 전망이다

- (동남아 경제) 경기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97년의 성장세(4.8%)보다 높은 5.8%선의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

- 99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민간소비 증가와 무역 수지 흑자 확대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음. 또한 위기 과정에서 급격히 상승하였던 소비자 물가도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환율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됨
- 그러나 공장 가동률은 아직도 낮은 상태이고 투자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임. 특히 전체 대출에 40%에 달하는 부실 채권의 처리 문제와 기업 구조조정이 향후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

- (라틴 아메리카) 경기회복기에 있으나 97년의 성장수준 회복은 요원한 상태

이며 2000년중 3.6%의 성장이 예상됨

- 브라질을 중심으로 무역수지 개선과 더불어 전반적 경기회복 양상이 나타날 것이나,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 우려로 고금리 해소에 미온적인 입장이라 큰 폭의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
- 특히 미국 금리의 연속 인상으로 인해 경제위기 중 악화된 재정 적자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

- (동유럽) 동유럽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세는 이어지고 있으나 폴란드의 경상적자규모 누증으로 인한 통화 가치 급락이 우려되고 있음

- 동유럽 체제 전환국들은 2000년에도 4%대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음. 특히 체코의 내수 회복세가 큰 폭으로 나타날 전망이다
- 러시아 위기로 인해 금융시장이 취약한 점을 감안한다면, 해외 자본 유입은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경상적자는 국가별로 큰 편차를 보일 것임

< 99, 2000년 세계 경제 전망 >

	1996	1997	1998	1999(p)	2000(f)
세계경제성장률(% , 연간)	3.8	3.7	1.6	3.0	3.6
미국	2.8	4.5	4.3	4.1	4.7
일본	3.9	1.6	-2.5	0.5	1.7
유로권	1.4	2.2	2.7	2.2	3.3
중국	9.7	8.8	7.8	7.1	8.0
동남아	7.5	4.8	-3.0	5.0	5.8
라틴 아메리카	3.1	5.4	2.0	0.5	3.6
동유럽	4.0	3.0	3.3	3.5	4.8
세계교역 성장률(% , 연간)					
(물량기준)	6.8	9.9	3.6	3.7	6.2
(가격기준)	-1.3	-4.9	-5.1	-0.8	3.4
국제환율(연평균)					
엔/달러 환율(¥/\$)	104.75	121.05	130.9	113	105
달러/유로 환율(EURO/\$)	-	-	-	1.08	0.98
국제금리(% , 연말)					
미국(T-Bond 30년물)	6.65	5.71	5.41	5.87	6.30
일본(국채 10년물)	2.52	1.51	1.12	1.70	1.70
국제유가					
(WTI기준, \$/bbl, 연평균)	21.95	20.61	14.80	17.80	22.10